

화학산업 생산증가 하강기 벗어나!

북미 및 극동 아시아 강세 ... 서유럽 프랑스 · 이태리 제외하고 상승세

전 세계적으로 화학제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화학산업이 하강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ACC(American Chemical Council)에 따르면, 세계 화학제품 생산량은 2003년 3월 및 4월 전월대비 각각 0.3%, 0.4% 감소했으나 6월에 0.1%, 7월 0.4%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.

2003년 7월 생산량은 전년대비 1.4% 증가한 것으로 북미 및 극동 아시아 지역의 경기강세가 2004년 화학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, 서유럽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.

북미 화학 생산량은 2003년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6월 0.4%, 7월 0.1% 증가했다.

AAR(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)에 따르면, 철도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2/4분기 동안 높은 수준에 달했던 재고가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철도운송량은 2003년 9월 전년동기대비 1.4% 증가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4월 2.4% 감소한 이후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.

서유럽 지역 또한 화학제품 생산량이 3-5월 꾸준히 감소한 이후 6월 2.4% 했으나 7월에는 0.8% 증가하는데 그쳤다. 이는 프랑스 및 이태리 지역이 경제 성장둔화, 재고감축 및 최종수요 시장 침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독일 및 영국을 비롯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화학제품 생산량은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17>